

David deSilva 박사 , 외경, 강의 3, 자세히 살펴보기: 마카비 1서, 2서, 유디트

© 2024 데이비드 드실바 (David deSilva) 및 테드 힐데브란트 (Ted Hildebrandt)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자세히 살펴보기: 마카베오서 1, 2서와 유디트입니다.

2 Maccabees의 저자가 구레네의 야손의 작품을 요약하면서 관심을 끄는 이야기의 일부를 다시 말하면서, 그를 이끄는 관심사 중 하나는 이 이야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카베오서 2서에서 주목할만한 점 중 하나는 화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이야기에 개입하는 경우 종종 신명기적 관점에서 이야기의 사건에 대한 논평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 기간 내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유대민족으로서 어떻게 유익하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이 시대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역사신학은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전제 중 하나는 언약에 대한 순종, 즉 모세 율법에 대한 순종이 언약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하는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높아지게 될 것이라. 이러한 축복에는 땅과 주민의 비옥함, 도시와 농촌 지역 사람들의 안전, 모든 이웃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격하고 명예를 얻으려는 적으로부터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28장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계명을 무시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저주가 임하고, 땅과 사람이 황폐해지고, 외국의 공격과 자연 전염병에 취약해지고, 인구가 쇠퇴하고, 궁극적으로 정복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외세에 의한 학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셨습니다. 만약 불순종과 언약의 저주를 경험한 후에 백성이 회개하고 순종을 새롭게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고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3절에 보면, 만일 백성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네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너와 네 자손이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전과 같이 회복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흠으신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이제, 이 역사 신학은 작가의 이야기 해석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마카베오서 2서 3장에서 작가는 헬리오도루스가 성전에 들어가 신성한 보물을 가져가겠다고 위협한 일화에 대해 이야기한 후, 미안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의 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로운 대제사장 오니아스 의 기도에 응답하여, 하느님께서 헬리오도루스를 막으시고 그를 물러나게 하시고 그의 신성한 장소를 신성하게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악을 미워하는 대제사장 오니아스 로 인해 거룩한 성이 조화롭게 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토라를 더 이상 공식적인 정치적 헌법이 아닌 그리스 헌법으로 대체하는 헌법 개혁을 도입했을 때 이제 저자가 개입합니다. 그는 토라에 대한 오니아스 의 충실성과 그의 남동생 이아손이 토라를 그 땅의 정치적 헌법으로 따로 두는 사이에 대제사장이 땅을 이끄는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이유로 위험한 상황이 그들을 휩쓸었다고 말한다. 그들이 헌신하고 삶의 방식을 본받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들, 즉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적이 되어 그들에게 형벌을 가했습니다. 다음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신성한 법 앞에서 불경건한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자는 안티오코스 4세(Antiochus IV)가 성전을 습격한 직후에 이 사건에 대해 신명기론적 해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의 형제인

셀레우코스 4세(Seleucus IV)는 자금을 얻기 위해 사원을 습격하기 위해 대리인을 보냈으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 4세(Antiochus IV)가 들어가자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때리기 위해 말을 탄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금과 은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왜? 저자는 이것을 신명기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마카베오서 2장 5장에서 우리는 안티오코스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주님께서 잠시 진노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매우 기뻐했다고 읽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거룩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이전에 그렇게 많은 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안티오코스는 헬리오도로스처럼 경솔함을 버리고 공격하자마자 단번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전능자가 진노하심으로 버리셨던 것이 그 나라가 위대하신 주와 화해할 때 모든 영광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며, 이로써 회개와 순종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과 화해하실 것임을 기억한다. 그리고 물론 마카베오 반란의 성공이 이를 증명할 것입니다. 작가가 순교 이야기에 접근할 때, 그는 특히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그 에피소드에 대한 해설을 다시 제공합니다. 그리고 순교에 대한 그의 해석은 역시 신명기와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카베오서 6장 12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러한 형벌을 읽고 토라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박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형벌은 우리 민족을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징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부도덕하게 행동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혼자 남겨지지 않고 즉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큰 친절의 표시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득 채울 때까지 참을성 있게 형벌을 연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해서는 우리의 죄가 극에 달하기 전에 다르게 다루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서 자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불행으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순교 에피소드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토라에 순종하는 유대인들은 안티오코스 4세와 그의 병사들에 의해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벌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실제로 순교자들 자신도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순종이나 불순종, 즉 유대인 개인의 순종이나 불순종은 그 개인이 이생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 있는 순종하는 유대인과 불순종하는 유대인 모두 그들에게 닥친 재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유대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죽기까지 기꺼이 순종했다는 사실이 온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맞서 끝까지 언약을 지키려는 이 유대인들의 의지는 온 나라에 대표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말했듯이 주님의 진노를 자비로 바꾸십시오.

따라서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마카베오서 2서 7장의 일부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 자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해 이러한 일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혹은 조금 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잠시 진노하셔서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면, 그분은 다시 자기 종들과 화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그들 자신이 의심할 바 없이 내내 토라를 준수해 왔지만 여전히 정당하게 거기 서서 죄 많은 나라의 일부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는 민족 가운데서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카베오서 2장 7장의 순교 장면이 끝날 무렵에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나도 내 형제들과 같이 조상의 율법을 위하여 몸과 생명을 다 바쳤나이다.

지체 없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시련과 질병을 겪은 뒤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 민족 전체를 공의롭게 징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나와 내 형제들을 통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그래서 그 형제는 이러한 지독한 고문을 견디면서, 이제 하나님께는 이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형제들에게 형벌을 충분히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고 그 후에는 남아 있는 살아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비로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8장 5절에서 저자는 한때 마카베오 유다가 군대를 조직한 후에는 주의 진노가 자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카베오는 이방인들에 의해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서사 속에는 의로운 순교자들의 죽음이 온 백성을 위한 효능이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차례에 영향을 준 것은 언약에 대한 순종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많은 사람을 위한 언약의 축복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차례입니다.

유다가 시리아 장군 니카노르가 이끄는 강력한 군대를 처음으로 패배시키는 다음 에피소드는 순교자들의 죽음의 효능을 보여주고 또한 새로운 순종이 언약에 대한 새로운 순종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명기의 약속과 관련하여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불순종하는 민족 가운데서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정당한 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나라를 정당하게 처벌하고 계시지만, 순교자들 자신은 어떠한가? 언약에 대한 순종이 정육점 안티오코스과 그의 병사들에 의해 분열되었다면 신명기는 어떻게 참됩니까? 저자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해결한다. 성약에 대한 충성심이 이생에서 약속된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약에 대한 충성심이 다음 생에서 약속된 축복으로 이어지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순교 이야기 전반에 걸쳐, 고문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는 형제들은 부활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증언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현재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법을 위해 죽는 우주의 왕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는 폭군이 막 자르라고 명령한 자신의 사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팔다리를 하늘에서 받았고, 하나님의 법을 위해 그것들을 내놓았지만,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제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분에 의해 일으켜질 희망을 고대하기 때문에 인간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카베오 둘째서에서 우리는 부활의 희망에 대한 최초의 확실한 증인 중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신명기의 하나님의 약속이 개인이나 국가 전체에 관하여 실패할 수 없다는 확신의 산물입니다 .

이제, 마카베오 2서의 저자는 자신의 서술 과정에서 몇 가지 다른 신학적 논평을 하고 있으며, 특히 그 중 하나는 그가 개신교 개혁자들과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유다와 그의 군대는 끔찍한 패배, 설명할 수 없는 패배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카베오서 2장 8장, 9장, 10장, 11장에서 네 장의 전투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고, 갑자기 12장에서 그는 패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 왜?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신학적 논평을 합니다.

이 패배 후 다음 날, 유다와 그의 부하들은 쓰러진 자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그들의 친척들과 함께 조상의 무덤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암니아에서 유대인들이 죽은 군인들의 옷 속에 입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신성한 부적과 우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타락했는지는 모두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숨은 일을 드러내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지은 죄가 완전히 소멸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존귀한 유다는 백성들에게 자기들을 죄에서 벗어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넘어진 사람들의 죄로 인해 일어난 일을 모든 사람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에게서 거두어들인 후에 그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은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작가님의 해설입니다 . 그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명예롭고 적절하게 행동했습니다.

만일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고대하지 않았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경박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하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최고의 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건하고 거룩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화해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문제가 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구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본문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마카베오 둘째를 저술한 편집자, 요약자는 유다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다가 행한 일을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유다 자신은 죽은 자의 부활을 바라보지 않고 이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죽은 군인들을 위한 제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군인들을 위해.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군대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다시 전쟁에서 그들을 지원하여 그들이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대를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 그러나 이 행위를 죽은 자를 위한 속죄제로 해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본문 전체가 개신교 개혁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한 사람은 마카비 둘째의 저자입니다.

이제 첫 번째 마카비서로 돌아가서 한편으로 첫 번째 마카비서의 저자는 두 번째 마카비서의 신학을 어떤 식으로든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카베오서 1서의 저자 역시 신명기를 읽고, 그것이 최근의 역사를 포함한 유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First Maccabees는 Second Maccabees가 아닐 수도 있는 다른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토라 준수가 하나님의 도움과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데 동의하지만, 순교자 이야기에서 기념하는 마카베오 둘째의 저자와는 다른 종류의 율법에 대한 열성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마카베오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순교 이야기를 두 장으로 나누어 줍니다. 마카베오서 1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순교 이야기를 서너 구절 소개합니다.

저자가 축하하고 싶은 율법에 대한 열심은 마타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보여준 열심입니다. 비느아가 창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과 그의 미디안 첩을 쳐부수면서 보여준 율법에 대한 열심. 국가를 폭력적으로 정화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토라에 대한 또 다른 열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Modin 사건에 대해 이미 보았거나 마지막 강의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마카베오 1서의 저자는 마카베오 2서의 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카베오 1서의 저자는 특별히 마타디아스의 행위를 우리가 광야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율법에 대한 폭력적인 열심의 전통과 연결합니다. 숫자를 통한 출애굽.

그래서 모세, 미안해요, 모세, 맛다디아가 이 다른 마을 사람이 시리아인, 그리스-시리아 왕의 관리인의 명령에 따라 이방 신에게 희생을 바치러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맛다디아는 열심으로 불탔고 그의 마음은 감동되었습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그를 제단 위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설이 있습니다. 그는 비느아가 살루의 아들 시므리에게 한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느아스가 그의 행위로 인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성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맛다디아의 후손들은 약 80~9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새로운 대제사장 왕조를 합법화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조는 유대의 대제사장 가족과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Mattathias는 모세가 행한 일을 매우 직접적으로 회상하는 일을 합니다.

이 열심의 행위가 있는 후 그리스-아람 관리와 그의 군사들도 죽인 후에 맛다디아가 성읍에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율법에 열심이 있고 언약을 지지하는 자는 다 나와 함께 나오라 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 모세가 부르짖던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여호와께 신실한 자들은 다 내 편으로 나오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배교에 가담한 형제들인 다른 지파들에게 심판을 집행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Mattathias와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것은 그들이 하는 일의 일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레위인들처럼, 유다와 그의 게릴라 부대는 법을 어긴 사람들을 찾아 추적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분은 불경건한 자들을 그 땅에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이스라엘에게서 진노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다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표적, 하나의 표적은 그 땅에 있는 이방인 압제자였습니다. 또 다른 표적은 법을 어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제거하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땅에서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진노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줄은 아마도 마카베오서 2서와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마카베오서 2서에서 무엇이 이스라엘의 진노를 돌이켰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율법에 순종한 순교자들의 신실한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진노를 돌이키는 일의 일부가 되는 것은 이 땅의 배교자들에 대한 불타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배교한 유대인이 나라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2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 전체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은 그 백성 전체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환점이 어디인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언약에서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그 전환점에 조금 더 가까이 밀어넣습니다. 이제, 내가 이미 암시했듯이, 마카베오 1서 저자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이 왕조, 즉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후계자인 하스몬 왕조의 등장을 정당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의 한 단계는 피니어스를 율법에 대한 격렬한 열심으로 영원한 신권 계약을 얻은 사람의 원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임종 당시 Mattathias는 Phineas를 원형으로 기억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우리 조상 비느하스는 열심이 깊었기 때문에 영원한 신권 성약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함축적으로 암시하고 있으니 비느하의 후손이 살아나서 맛다디아의 후손도 대제사장의 언약을 누려야 함을 암시 하는 것이 옳다 .

마카베오서 1장에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군사적 공적 초기에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다른 두 유대인 지도자인 요셉과 아사랴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요나단과 나는 여기서 마카베오서 5장을 읽고 있습니다. 유다와 요나단은 길르앗에 있고 그들의 형제 시몬은 프톨레매오 와 스가랴의 아들 요셉과 군대 장관 아사랴 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는 그들의 용감한 행위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용감한 행위와 그들이 싸웠던 영웅적인 전쟁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름을 내자고 하더군요.

우리가 가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싸우자. 이제 이는 결국 요셉과 아사랴의 군사들에게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제공하는 설명은 인용하자면, 사람들이 용감한 행동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큰 패주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의 가족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족을 구원의 대리인, 국가를 위한 구원의 대리인으로 선택하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 가문에 대한 강력한 왕조의 주장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부분에서 마카베오서 1장의 저자는 가족의 합법화를 위한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즉, 가족이 국가에 너무 많은 것을 바쳤고 국가를 대신하여 많은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국가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의 응답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들의 지속적인 지도자, 지속적인 통치자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는 마카베오서 14장에서 다시 이야기의 끝 부분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민족을 대표하여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형제인 시몬의 새로운 성취에 대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 시몬과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굳게 섰느니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들과 싸워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자유를 확립했습니다. . 그래서 불과 10절 뒤에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몬을 그들의 지도자와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했고 그가 자기 나라에 대해 유지한 정의와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몬의 통치와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요한 히르카누스 1세, 그 다음에는 요한 히르카누스 1세의 아들들, 순서대로 시몬의 손자 등등도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합법적인 통치입니다. 비느아가 보여준 것처럼 이 가족도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구원의 일꾼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피니어스와 그의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국가를 대신 하여 희생함으로써 국가가 짊어진 막대한 빛과 의무 때문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평화롭게 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저자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 합법적인 왕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마지막 형제인 시몬의 손자들에게 다가갈 때쯤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왕조의 정당성에 대해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 쿰란에 모인 사람들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사제 후보가 여러 명 제안되었지만 그들 중 마지막 한 명은 모두 하스몬 가문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로잡으실 때 두 명의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나온 메시아는 정당한 왕이 될 것이고, 아론의 집에서 나온 메시아는 정당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 관한 한 시몬의 가족은 적법한 대제사장직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권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 그러한 발전은 마카비 1서와 같은 책을 왕조 선전의 환영받는 작품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카베오 1서와 마카베오 2서 모두 유대 달력에 새로운 축제를 제정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봉헌절로 알려진 축제 또는 현재 알려져 있고 항상 언급되는 하누카입니다. 이 절기는 성전의 탈환, 성전의 정결, 그리고 성전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규정된 토라의 회복을 축하하는 절기였습니다.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새로운 축제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며, 현재 처음 두 장에서 마카베오서 2서 앞에 붙은 두 글자가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최근 행위를 기념했습니다. 마카베오 1서와 2서는 또한 유대인에 대한 특정 정체성이나 경계 표시의 중요성과 이러한 경계 표시에 대한 이방인의 인식을 부수적으로 반영합니다.

물론 이것은 할례의 중요성입니다. 할례는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음의 고통에 관해 특별히 금지한 행위 중 하나였지만 여전히 유대인 가족들은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을 위해 행하고 있습니다. 순교자 이야기에서는 식사 제한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돼지고기를 한 입 먹고 사지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세요.

아니요, 이것은 토라 내의 정체성 표시, 경계 표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안식일 준수도요. 나는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1st Maccabees의 사소한 삽화 중 하나는 분쟁 초기에 안식일에 충실한 유대인 자유 투사 그룹을 학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 자유 투사들은 안식일에 반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낮.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Mattathias는 안식일에 공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받으면 안식일에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보호할 사람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경의 또 다른 책임 유닛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분명히 역사소설의 작품입니다.

어떤 고대 독자라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대 독자들은 유디트의 첫 번째 장을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신성한 경전과 대조될 때 이야기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리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유대로 진출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허구화된 이야기의 일종의 허구화된 버전을 갖게 되었고, 여기에는 몇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몇 가지 필수적인 신학적 진리에 대한 서술적 증명을 제공하고 특정 행동 패턴을 장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훌륭한 이야기이므로 여기서 시간을 내어 간단하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보게 될 또 다른 텍스트인 토빗과 마찬가지로 유디트의 목표 중 하나는 확실히 좋은 이야기로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명예로운 도전과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미디어와의 전쟁에서 자신을 지원할 서방 가신들을 요청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상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경전의 역사서를 읽어 보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맥락에서 느부갓네살은 메대와 전쟁을 벌이는 자세를 취하고, 자신을 지원하기 위해 서부의 가신들을 소집합니다.

그의 서쪽 가신들은 느부갓네살의 부름과 소환을 거부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느부갓네살은 정신적으로 메모합니다. 나는 서부의 가신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들이 방금 짓밟은 명예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미디어에 대한 승리를 거둔 후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보냅니다. 물론 홀로페르네스는 사악하고 잔인하며 성공적인 장군입니다. 서쪽의 가신 국가들은 그에게 좌우로 복종합니다.

이제 홀로페르네스의 전진 과정에서 홀로페르네스는 두 번째 명예 대회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나라들의 복종을 받아들이시는 동시에 그들의 성전을 파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신 느부갓네살 신 숭배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종의 처벌로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예배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느부갓네살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영예를 보여줄 것입니다 .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쟁을 위해 동원됩니다.

순종하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유일신 에 대한 헌신을 위해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 그리고 홀로페르네스는 자신의 진영에서 전쟁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고민합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암몬 사람인 Achior라는 가신 중 한 명인 Achior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충실한 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홀로페르네스에게 조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 즉 신명기의 신학이 이 이야기에 짜여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최초로 증언한 사람은 암몬 사람 아히오르였습니다. 이제 홀로페르네스는 이 조언에 분노합니다.

느부갓네살 외에 누가 하나님이겠습니까? 나의 성공과 패배는 왜 그들의 신, 이스라엘 백성의 신과 그들의 신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홀로페르네스는 신 대 신이라는 두 번째 영예 경쟁을 강화합니다. 누구의 명예가 더 크나요? 진짜 신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는 Achior를 Holofernes가 올 첫 번째 유대인 도시인 Bethulia 라는 가상의 도시인 Bethulia 로 묶인 채로 보냅니다 .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을 공유하기 위해 Achior를 그곳에 남겨 둡니다. 베틀리아 사람들은 아키오르를 들여보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곳에 있는 이유를 말했고, 그들은 그를 위로했습니다. 물론 그가 이스라엘과 그들의 신에 대해 진실한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홀로페르네스는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베틀리아 정복이다 . 베틀리아 에서 고개를 통과하지 못하면 결코 예루살렘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순전히 허구입니다.

단일 패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300명의 스파르타인의 이야기를 조금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입증된 침략자로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헤쳐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허구의 이야기에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고 베틀리아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우리는 그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돔의 가신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 이야기의 유대 출신 작가와 남쪽에 있는 에돔 사람들인 이두메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의 가신들은 홀로페르네스에게 전략을 제공함으로써 그를 돕습니다.

베틀리아가 물을 얻는 샘이 어디인지 보여 주었고 , 그래서 홀로페르네스는 그 장소를 점령하여 도시를 포위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34일이 지났고 이제 사람들은 식량과 물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해졌습니다. 베틀리아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가서 그들이 물 부족과 물 부족으로 모두 죽지 않도록 홀로페르네스에게 복종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음식. 그리고 장로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5일 안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홀로페르네스에게 항복할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이제, 책의 중간 지점인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야기의 여주인공인 주디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과부이고, 마을에서 고결하고 존경받는 여성인데, 그녀가 장로들을 집으로 불러올 정도로 존경을 받는데, 이는 흥미롭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장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사적인 공간으로 그들을 불러들이고, 국민과 그런 합의를 한 것을 질책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훼손되도록 허용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도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녀는 살인 옷을 입고 하녀와 함께 홀로페르네스 수용소로 나갑니다. 그녀는 앞으로 4일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음식과 요리를 충분히 가져가서 앗시리아 적의 진영에 있는 동안 정결한 음식을 지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장군에게 끌려갔고, 장군은 즉시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장군에게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는 자기 백성이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예루살렘 제사장들을 위해 쌓아둔 십일조를 이제 먹어치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순간 그들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며, 그녀는 그 일의 일부가 되거나 그들이 언약을 어긴 후에 그들의 머리에 임하게 될 일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버림받고 안전을 위해 홀로페르네스로 오게 된다. 그녀는 매일 밤 수용소를 떠나서 씻는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신성한 보호가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을 문제없이 공격하고 패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날 밤, 홀로페르네스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없이는 수용소에서 나갈 수 없다고 결정합니다. 사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불명예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여기에 있는 동안 내가 그녀를 유혹할 수 없다면 그녀는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우등 콘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력적인 남성으로서의 홀로페르네스의 명예와 순결한 과부로서의 유디트의 명예.

이것이 Judith가 기다려온 기회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물론 그녀가 그를 이끌고 홀로페르네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밤에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경호원을 해고한 후 텐트에 유디트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기절합니다. Judith는 검을 들고 두 번의 타격으로 머리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밤 수용소 밖으로 나가 냇가에서 몸을 씻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알리바이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홀로페르네스의 머리가 들어 있는 음식 자루를 가지고 캠프를 떠나 도시로 돌아가 도시의 장로들을 위해 그것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Achior는 물론 거기에 있었고 그는 Holofernes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보았고 이것이 실제로 아시리아 장군의 수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베투리아 사람들은 집단으로 내려가 적진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적진은 기습에 휩싸이고, 중위들은 장군을 깨우고 명령을 받으러 들어가고, 대신 머리 없는 장군의 시체를 발견한다. 그래서 온 군대가 혼란스러워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후방에서, 후방에서의 맹공격으로 인해 며칠 동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Judith는 자신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녀가 선언했듯이 그는 돌아 오자마자 나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 있었지만 그는 결코 나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보존하시고 적군을 도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영예를 잃었습니다. 서술자가 말했듯이, 느부갓네살의 온 집안이 그의 장군이 머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수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 아히오르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합니다. 그는 할례를 받고, 정결케 되고, 정결 의식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디스는 다시 사생활로 돌아가기 전에 놀라운 찬양의 시편을 부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그 맥락에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이 책은 마카베오 반란 이후에 아마도 히브리어로, 아마도 유대에서 쓰여졌을 것이라는 모든 징후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Achior는 Holofernes에게 조언을 할 때 연설에서 성전의 파괴와 재건축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성전의 더럽힘과 정화를 회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종의 역사적 결함, 즉 시대착오가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정복 이후에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역사적으로 파괴와 재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그는 우리가 마카베오 1서나 마카베오 2서에서 읽은 것처럼 더러움과 정결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홀로페르네스가 가하는 위협, 즉 성전을 새롭게 모독하겠다는 위협 역시 안티오코스의 행동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군사력은 제가 요약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유딧의 더 큰 이야기에 반영된 이스라엘의 정치는 하스모니안 시대의 정치를 더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물론 절정의 전투에는 유딧이 니카노르를 패배시킨 것에 대한 회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장군의 여러 신체 부위를 도시 성벽에 매달아 놓는 일도 포함됩니다.

유딧의 이야기는 성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 4-5장에 나오는 야엘과 시스라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야엘과 시스라의 경우 특정 규정을 위반하는 유사한 모티프로 환대의 규정, 유딧의 경우 거짓말 대 진실을 말하는 규정, 적의 모티프에 더 가깝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에서 이스라엘이 여자의 손에 넘겨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딧의 구원의 노래 자체는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을 넘어 아마도 그리스 이야기에서 다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테르모필레 고개의 스파르타군에 관한 이야기(아마도 이때쯤에는 잘 알려져 있음)나 테미스토클레스가 속임수를 써서 페르시아 해군을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시킨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제2성전 시대 그리스-로마와 유대 세계의 이상적인 여성은 순종적이고 조용하며 성적으로 순결한 여성이었습니다. Judith는 이러한 이상에도 도전하고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캐릭터입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순결하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는 여성스러운 매력을 이용해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면서도 이야기 전, 도중, 후에도 순결함을 유지한다. 그녀는 집을 돌보고 죽은 남편의 집안일과 사업을 관리하지만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사적인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그들을 부르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고, 나쁜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도록 버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실제로 적진에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그녀이다. 반면에 그녀는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약함, 곧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여자의 강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찬양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짧은 일을 마친 후 매우 눈에 띄게 개인 역할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공적인 리더십 역할에 전혀 머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성의 역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성취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영구적인 방식으로 그러한 역할에서 실제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유디트의 이야기가 제기하는 도덕적 질문 중 하나는 사기의 윤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좌우로 이를 통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말과 속임수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베틀리아 의 상황에 대해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병사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 그들은 십일조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 따라서 그녀가 그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하겠다고 그들에게 맹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적진 밖으로 나가서 시냇가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실 여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그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녀는 연기를 마친 후 알리바이, 즉 탈출 경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녀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수단 으로 자신을 인용하고, 거짓말하는 입술을 사용하고, 인용을 끝맺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

홀로페르네스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는 모호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는 또한 속이려는 시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진실에 대해서만 한 가지를 말하지만, 독자는 알고 Judith는 그녀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홀로페르네스가 캠프를 떠나기 전에 그가 그녀와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속임수는 실제로 공격에 맞서 자신이나 주요 준거 집단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이익이나 그 명예에 대한 외부인의. 진실은 외부인이나 적들이 우리의 이익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빛진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은 가족, 동료 집단, 국가 등 자신이 속한 그룹의 구성원, 즉 제공자에게 그러한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에 대항하여 페르시아 함대 사령관과 정치적 동맹을 맺는 척하고 거짓 정보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페르시아 함대 사령관을 패배로 유인하는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디트는 자신의 개인적인 명예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외부인들의 도전을 극복하려는 계획의 일부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예에 솔직하게 도전하고, 물론 수용소에서 유디트를 갖고자 하는 열망으로 유디트의 명예에 도전합니다.

유디트의 이야기는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준수하고, 토라에서 규정한 규칙이나 관행을 준수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셔 준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우리와 그들 사이의 매우 명확한 경계를 유지합니다. . 유디트는 베틀리아를 떠나 아시리아 진영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음식, 접시, 도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녀가 홀로페르네스 앞에 나타날 때 그녀는 그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식사할 때 자신의 식기와 음식, 음료를 눈에 띄게 꺼냅니다. 따라서 식탁 교제를 하는 동안에도 유대인인 유디트와 비유대인인 홀로페르네스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는 성적 경계를 관찰한다.

그것은 여자로서 그녀에게 합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유대인 여자이고 그는 이방인 남자이기 때문에 두 배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홀로페르네스는 그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그녀를 더럽히거나 수치스럽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 비록 책으로서 Judith가 이러한 경계를 확인하고 있는 동안에도 Judith는 실제로 외경 전체에서 이방인 개종에 대한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창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외경과 위경의 전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강조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 제사장의 딸인 아스낫이 족장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유대교로 개종한 아스낫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경 문인 요셉과 아스낫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만유의 암몬 족속인 아키올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이해합니다. 그는 이 지식을 고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합니다. 베헤리아는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도록 파견된 그를 그들 가운데로 환영했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한 후 할례를 그 자신이 비유대인인 것과 유대인이 아닌 것 사이의 경계를 넘었다는 표징으로 받아들여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유대인이 되십시오. 다음 세션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차 에스드라서를 포함한 다른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성서중간기를 거쳐 1세기 말까지 훨씬 더

빠르게 전진하게 해줄 것입니다. 외경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avid DeSilva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3, 자세히 살펴보기: 마카베오서 1, 2서와 유디트입니다.